

세부 CEBU



세부는 필리핀 중부 세부 주에 있는 도시이다. 세부 주의 주도이며, 비사야 제도의 중심지이다. 수도 마닐라보다 오래된 필리핀 최초의 식민지 도시로, 인구는 2010년을 기준으로 866,171명이며,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대도시권인 메트로 세부를 형성하며, 인구는 250만에 달한다.

국제선, 국내선 등 수많은 항공 노선의 중요한 허브이며,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부터 남부의 민다나오에 이르는 지역의 상업, 무역, 산업의 중심지이다. 최근에는 관광 산업과 가구 생산이 번성하고 있으며, 콜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제작 등 IT 산업의 하청업체로서 급성장하고 있다.

역사

세부는 스페인의 식민지 이전부터 항구 도시였다. 중국(명) 외에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이때 이슬람교도 전해졌다.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며, 이때 이미 원주민들의 도시가 번창하고 있었다. 그는 세부의 영주였던 라자 후마본 (Rajah Humabon)을 회유했다. 라자 후마본과 왕비, 주민들은 그 해 4월 14일 세례를 받고 처음 필리핀 기독교인이 되었다. 마젤란은 지방 영주 간의 싸움에 개입하여 기독교로 개종시켰지만, 이 섬을 스페인 영토로 선언할 수 없었다. 4월 27일 막탄 섬에서 마젤란을 따르지 않았던 라푸라푸가 이끄는 군대와와의 전투가 일어나 전사했기 때문이다.

이후 스페인 세력이 1565년 이 곳에 필리핀 일대 최초의 선교 기지와 정착지를 건설하여 필리핀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정복자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는 병사들과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및 프란시스코 회로부터의 수도사와 함께 상륙해, 라자 후마본 왕의 아들, 라자 투 파스왕의 마을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필리핀 식민지화의 최초의 발판을 쌓아 올렸다. 마젤란이 산 미구엘로 개명한 세부의 마을은 레가스피에 의해서 비야 델 산티시모 논브레 데 헤스스(Villa del Santisimo Nombre de Jess)라고 다시 개명되어 마닐라가 식민지화 될 때까지의 6년간, 세부 시는 새로운 스페인 식민지의 수도가 되었다. 그들은 이 해안에 멕시코와의 무역이나 현지인과의 전쟁에 대비한 항구 요새인 산 페드로 요새를 건설했고, 이후 스페인 식민지의 수도는 마닐라로 옮겨졌으나, 세부는 중남부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동쪽의 세부 해협과 막탄 섬으로 바다에서 보호되고 세부 해협과 서쪽의 산맥 사이에 위치하여 항구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곳을 중심으로 섬 각지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며, 막탄 섬에 국제공항이 있다. 필리핀 중남부의 상업·경제·문화·종교의 중심지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세부는 마닐라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언어

세부아노어(비사야어)가 메트로 세부의 가장 일반적인 언어이고, 교육 및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영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학교 등의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국어로 타갈로그어를 배우기도 한다. 기타 비사야 제도의 언어 (와라이어, 일롱고어 등)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중국인 사이에서는 샤먼 주변의 민난어를 바탕으로 필리핀 말과 섞인 특유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기후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연중 23~33°C로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다. 1년 중에서 1월이 가장 춥고, 5월이 가장 덥다. 정말 날씨가 덥다. 하지만 새벽에 한시간 정도 내리는 소나기는 건조한 날씨를 식혀주는데 좋다. 6시 무렵이면 해가 지고 캄캄해진다.

종교

종교는 기독교,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주류이다. 민다나오에서 온 마라나오 사람들 중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중국인은 불교 및 도교를, 인도인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세부 거리의 주택가 거리에는 큰 도교 사원이 건립되어 있다.

관광

산페드로 요새 :규모는 작지만 필리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곳



산 페드로 요새는 항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스페인 통치시대였던 1738년에 이슬람 해적 등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마닐라에 세워진 인트라무로스과 쌍벽을 이룬다. 입구에 들어가면 레가스피 초상화와 마젤란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고, 예전모습의 요새도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다.

원래 1565년에 레가스피 장군에 의해 지어졌고 군사시설, 포로수용소 시설 등으로 사용 되었는데, 처음에는 목책만 세워져 있는 파수대에 불과했으나, 이때 현재의 모습처럼 석조로 개축되었다.

이 곳은 규모는 작지만, 이곳은 필리핀의 역사를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스페인 통치 말기에 해당하는 1898년에 이 곳은 세부의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점령되었고,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군 막사로,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포로수용소로 쓰였다.

현재 요새 내부에는 관광안내소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광장이 있다.

마젤란 십자가 :마젤란이 만들었다는 나무 십자가가 있는곳



마젤란 십자가는 1500년대 필리핀 최초의 그리스 교도 추장 라자후마본과 그의 가족 800명의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십자가를 꺾어서 달여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는 설 때문에 훼손이 심각하여, 결국 나무 십자가의 보관을 위해 1521년 4월 마젤라스 거리에 1834년 팔각정을 건립하였다.

나무로 원본을 보호하는 틀을 만들어 놓아 십자가의 원형은 볼 수 없지만 천장의 벽화는 십자가를 제작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산토니뇨 성당 (성 어거스틴 성당) :세부 사람들의 수호신 산토 니뇨 상이 있는 성당



도시 중앙에 있는 산토니뇨 성당은 1565년경 레가스피에 의해 세워졌고 몇 차례 재건되었다. 처음에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리파옌으로 지붕을 만들었으며 18세기 들어와서 산호석으로 다시 만들어 졌다.

산토 니뇨 성당은 성 어거스틴 성당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성당 중앙의 장식이 매우 화려하다. 또한 이 성당은 산토 니뇨 (아기예수)상으로 유명한데, 이 아기예수는 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호신이기도 하며 매년 1월 3째주 일요일날 열리는 시놀록 축제의 주인공이기도하다. 박물관 가는 길에는 양초에 불을 피워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부하게 되어있다.

아얄라몰 (Ayala Mall) : 세부 시내 중심에 있는 멀티쇼핑몰



아얄라 몰은 세부 시내 중심에 있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멀티쇼핑몰로 극장,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슈퍼마켓, 다양한 브랜드등이 입점하고 있습니다.이 몰은 규모는 SM MALL 보다 작지만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얄라 몰은 작은 공원을 중간에 두고 메인윙과 테라스로 나뉘진다. 메인윙쪽에는 의류관련, 슈퍼마켓, 루스탕(DFS 브랜드), 패스트푸드 식당, 컴퓨터나 핸드폰 전문점, 오락실 등이 있으며, 테라스쪽은 대부분 식당이 밀집해있다. 추천 식당으로는 카페라구나와 골든코우리(현지식), 시암(태국식), 샤브웨이(샤브샤브) 그 외 일식당, 그리스식당, 스타벅스, 커피빈, 서점 등이 있다. 특히 아얄라몰은 밤에 조명이 상당히 멋지다. 해질 무렵부터 저녁식사를하고 차 한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부려 보는것은 여행의 재미를 높여준다.

까오비안 호핑투어 :방카보트를 타고 스노클링 체험



필리핀 전통 방카 보트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아름다운 까오비안 섬을 다녀오는 호핑투어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해상보호지역으로 이동하여 아름다운 산호와形形色색의 열대 물고기를 보며 스노클링을 한 뒤 까오비안 섬으로 이동해 현지인만의 비법으로 만든 맛있는 특별 바베큐 식사, 까오비안섬에 있는 동물과 까오비안섬을 체험할 수 있다.